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들, 사제들, 보제들, 수도자들과 모든 충실한 자녀들을 향한  
모스크바 및 쏘 루시 총대주교 키릴로스의 부활절 메시지**

**주님 안에서 경애하는 주교님들, 존경하는 사제님들과 보제님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수사님들과 수녀님들, 친애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신 구세주에 대한 찬란한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 차 쾌활한 이 인사말을 여러분 모두께 건네며 축일 중의 축일인 주님의 부활절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의 대항연, 영의 대축제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세상에 강림하시어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감내하신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천상 아버지의 명령으로 승리자로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리로 죽음을 삼켜 버리셨습니다!” (I 코린토 15:54)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만방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승을 폐기하고 악마의 권세를 파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人愛者이신 하느님께서 이루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의 속량과 용서를 얻는 것입니다. (에페소 1:4-5, 7)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 이는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만인의 구원을 위하여 실제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동시에 죽음은 그 불가역적 성질을 상실하였고,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이들에게 있어 영생으로 향하는 탄생이자 하느님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들이 온갖 고난을 용감히 맞이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 위대한 의인들이 죽은 이들을 사멸한 이들로 여기어 애통하였다면, 이제 주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은 더 이상 그들을 겁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주교 대 아타나시오스의 탁월한 저작 「하느님 말씀의 육화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육적 강림에 대한 설교」처럼,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그들이 죽어도 사멸하지 않고 도리어 부활을 통하여 불멸하게 될 것을 매우 잘 알아 죽음을 아무 것도 아닌 양 디딘고 셉니다. 그 명백한 예를 20 세기 신앙에 대한 박해의 시대에 고백자의 冠을 받아들인 러시아 교회의 신순교자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온 세상이 복음경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루카 12:16-21)를 나날이 닮아가고, 그저 안락과 성공 그리고 장수만이 인간존재의 주된 가치라고 선전되는 오늘날 구세주의 제자이자 추종자들인 우리는 사도 바오로를 따라 담대히 증거하는 바, 우리에게 있어 삶은 곧 그리스도이며 (필리피 1:21), 죽음은 존재의 종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믿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혼을 지으신 것은 영원을 위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주 일상의 허무와 근심에 빠져 가라앉는 우리에게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신적 임재의 힘을 식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활절 기간은 완전히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공기 자체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부활절의 기쁨에 젖어 있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각 사람에게 넘쳐 흐릅니다.

이 신묘하고 휘황찬란한 축일의 제전에 입장하면서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그 위대한 선물을 확신 있게 증거할 소명을 받습니다. 주변인들과 기쁜 복음의 소식을 공유하고,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과 배려 그리고

관심을 선사하고, 우리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시다.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신 구세주를 이렇게 감사 드리는 입과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하면서 우리는 부활절에 실현되는 기적의 상속자가 되며 우리 모두에게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지존자 하느님의 아들딸이라 담대히 일컬어지게 됩니다.

여러분께 광명의 거룩한 파스카 대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거듭해서 이 기쁜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모스크바 및 쏘 루시 총대주교**

*모스크바  
그리스도 부활대축일  
2018년*

(본 총대주교 메시지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신학원 총장 암브로시오스 예르마코프 페테르고프 대주교의 축복에 따라 본 신학원 학생 필라레토스 최지윤에 의하여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